

우수직원 국외 연수 결과(귀국)보고서

팀 명칭	한 수 배워볼 관악(시즌 3)
연수주제	선진행정 우수사례 습득
연수지역	미국 서부
연수기간	2024. 4. 8. ~ 2024. 4. 17.
총 지출금액	39,998,000원

참 가 자 인 적 사 항

구분	소속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팀 대표	임원	이사장	천범룡	
팀 원	문화체육팀	일반직 3급	이동익	
팀 원	기획감사팀	일반직 5급	배기수	
팀 원	기획감사팀	일반직 6급	백예리	
팀 원	경영지원팀	일반직 5급	김지혜	
팀 원	경영지원팀	일반직 6급	김주리	
팀 원	경영지원팀	기간직	정관남	
팀 원	문화체육팀	일반직 5급	이준원	
팀 원	문화체육팀	일반직 6급	김재일	
팀 원	문화체육팀	일반직 6급	유지웅	
팀 원	주차사업팀	일반직 5급	하경숙	
팀 원	주차사업팀	공무직	서숙경	
팀 원	주차사업팀	공무직	장경순	
팀 원	환경시설팀	일반직 5급	서도호	

2024년도 우수직원 국외 연수 결과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팀 대 표 :	천범룡	(서명)
팀 원 :	이동익	(서명)
팀 원 :	배기수	(서명)
팀 원 :	백예리	(서명)
팀 원 :	김지혜	(서명)
팀 원 :	김주리	(서명)
팀 원 :	정관남	(서명)
팀 원 :	이준원	(서명)
팀 원 :	김재일	(서명)
팀 원 :	유지웅	(서명)
팀 원 :	하경숙	(서명)
팀 원 :	서숙경	(서명)
팀 원 :	장경순	(서명)
팀 원 :	서도호	(서명)

1 연수개요

□ 연수목적 : 선진국가의 정책, 문화 등 탐방을 통한 선진경영 및 우수사례 발굴

□ 기간 및 연수지역

○ 연수기간: 2024. 4. 8.(월)~4. 17.(수) [일정 : 8박 10일]

○ 연수지역: 미국(서부)

○ 선정사유

1) 2022년 기준 세계 GDP(국내총생산) 1위(25조 4,627억 달러)의 경제규모

-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13위(16,733억 달러)

국제비교(명목 GDP)

2022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13위 수준인 것으로 보임
(단위: 억US달러, 시장환율 적용)

국가명	순위	금액	한국대비규모 (한국=100)	국가명	순위	금액	한국대비규모 (한국=100)
미국	1	254,627	1522	브라질	11	18,747	112
중국	2	178,760	1068	호주	12	17,023	102
일본	3	42,256	253	대한민국	13	16,733	100
독일	4	40,752	244	스페인	14	15,207	91
영국	5	30,798	184	멕시코	15	14,597	87
인도	6	30,096	180	인도네시아	16	13,340	80
프랑스	7	27,791	166	사우디아라비아	17	11,081	66
캐나다	8	21,436	128	네덜란드	18	11,037	66
러시아	9	20,503	123	튀르키예	19	8,855	53
이탈리아	10	20,105	120	스위스	20	8,054	48

주 : 1)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외에는 OECD 및 IMF 전망 기준
자료: UN(2023.6.1 기준), OECD, IMF

2)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주요 이슈

- 바이든 행정부 2024년 청정 수소 허브(H2Hub) 조성을 위해 70억달러(약 9조1140억원)지원
- 미국은 기후정상회의(COP28,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석유 및 가스생산에서 메탄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 발표
-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미국 내 태양광발전 규모가 2023년 1630억kWh에서 2025년 2860억 kWh로 75% 성장할 것으로 예측, 풍력발전 규모는 2025년에는 지난 해보다 11% 증가한 4760억 kWh로 비교적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캘리포니아 주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 SB253) 도입
→ 캘리포니아에서 연 매출 10억달러(약 1조3020억원) 이상의 기업들에게 배출량 감사 및 보고 프로세스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률로 해당 기업들은 2024년 말까지 2026년 보고 준비를 위해 2025년 배출량 측정을 위한 감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야 함

3) 친환경 자연유산 관리 우수사례 벤치마킹

-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NPS)

→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은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의 하나로 1916년 8월 25일에 제정된 <국립공원국 조직법>에 따라 설립(상근 직원 약 15,000명, 임시 직원 약 5,000명, 매년 약 14만명의 공원 자원봉사자 직원이 활동 보조)되었으며 매년 3억 1,8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함

2 연수단 구성 및 임무

□ 인원구성: 총 14명(남성 8명 / 여성 6명)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주요임무
1	임원	이사장	천범룡	남	국외연수 총괄
2	문화체육팀	일반직 3급	이동익	남	국외연수 인솔
3	기획감사팀	일반직 5급	배기수	남	선진문화 및 사례 탐방
4	기획감사팀	일반직 6급	백예리	여	선진문화 및 사례 탐방
5	경영지원팀	일반직 5급	김지혜	여	선진문화 및 사례 탐방
6	경영지원팀	일반직 6급	김주리	여	선진문화 및 사례 탐방
7	경영지원팀	기간직	정관남	남	선진문화 및 사례 탐방
8	문화체육팀	일반직 5급	이준원	남	국외연수 기획 및 선진사례 탐방
9	문화체육팀	일반직 6급	김재일	남	선진문화 및 사례 탐방
10	문화체육팀	일반직 6급	유지웅	남	선진문화 및 사례 탐방
11	주차사업팀	일반직 5급	하경숙	여	선진문화 및 사례 탐방
12	주차사업팀	공무직	서숙경	여	선진문화 및 사례 탐방
13	주차사업팀	공무직	장경순	여	선진문화 및 사례 탐방
14	환경시설팀	일반직 5급	서도호	남	선진문화 및 사례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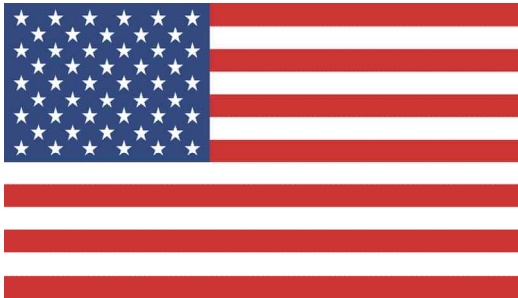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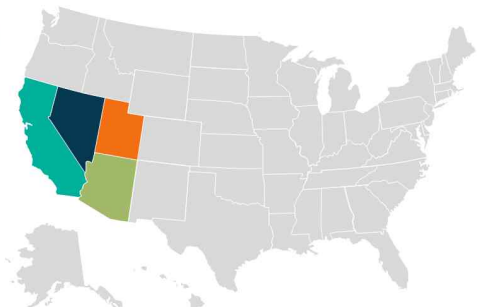


3

연수국가 개요

□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 위치: 북아메리카, 북대서양과 북태평양 연안,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
- 면적: 9,833,520km²
- 수도: 워싱턴 D.C.
- 종족구성: 백인 61.6%, 흑인 12.4%, 아시안 6%, 아메리카 및 알래스카 원주민 0.2%, 하와이 및 태평양 도서 원주민 0.2%, 기타 8.4%, 혼혈 10.2%(2020년)
- 공용어: 영어(78.2%), 스페인어(13.4%), 중국어(1.1%), 기타(7.3%)(2017년)
- 종교: 개신교 40%, 로마가톨릭교 21%, 모르몬교 1%, 무교 29%, 유대교 1%, 이슬람교 1% 힌두교 1%, 불교 1%, 기타 3%(2020년)
- 건국일: 1776년 7월 4일
- 국가원수: 제46대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2021년 1월 20일 취임)
- 정부형태: 연방공화제
- 주요경제지표('22년 한국은행 기준)
 - GDP: 25조 4,627억달러(세계 1위), 1인당 GDP 76,398불
 - 경제성장률: 2.1%
- 미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연방공화국이다. 1607년 영국이 제임스강 연안에 식민지를 조성한 이후 영국의 식민 상태였다가 1775년 미국 독립혁명 후 1776년 독립을 선언하고 1783년 파리조약에서 독립이 승인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정치·경제·문화 등에서 강대국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다 인종·다민족 국가이다.

국기	지도 및 방문 지역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flex: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리포니아(California) 로스앤젤레스, 리들리,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솔렝 📍 네바다(Nevada) 라스베가스 📍 유타(Utah) 자이언캐니언, 브라이스캐니언 📍 아리조나(Arizona) 그랜드캐니언, 홀스슈벤드, 맬렐로프캐년 </div> <div style="flex: 2;">  </div> </div>

4

연수일정

□ 연수기간: 2024. 4. 8.(월)~4. 17.(수) [8박 10일]

일자	도시	주요 연수일정
2024. 4. 8.(월) [1일차]	대한민국 → 미국	인천국제공항 ‘에어프레미아 YP101편’ (13:30) 출국 -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3층 출국장 1번 출구(11:00) 집결 - 인천국제공항 출발(13:40), 로스앤젤레스공항 도착(08:20) 로스앤젤레스 시내관광 - 지역 관광명소 및 랜드마크 탐방
2024. 4. 9.(화) [2일차]	로스앤젤레스 →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시설관람 - 사막시대에서 연 4천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도시로 변모한 도시 랜드마크 탐방
2024. 4. 10.(수) [3일차]	라스베가스 → 자이언캐니언, 브라이스캐니언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NPS) 운영 국립공원 시스템 탐방 I·II - 자이언캐니언 국립공원, 브라이스캐니언 국립공원 - 홀스슈밴드, 그랜드캐니언
2024. 4. 11.(목) [4일차]	홀스슈밴드, 그랜드캐니언 → 라스베가스	
2024. 4. 12.(금) [5일차]	라스베가스 → 베이커스필드 → 프레스노	유적지 방문 - 미본토 최초의 한인이민 선조들의 정착지이자 해외 독립자금 조성의 중심지 리들리 방문
2024. 4. 13.(토) [6일차]	프레스노 → 요세미티 → 샌프란시스코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NPS) 운영 국립공원 시스템 탐방 III - 요세미티 국립공원 및 박물관
2024. 4. 14.(일) [7일차]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시내관광 - 세계 유명 IT기업 소재지 실리콘밸리 방문 - 샌프란시스코 랜드마크 탐방(금문교)
2024. 4. 15.(월) [8일차]	샌프란시스코 → 로스앤젤레스	현지문화 탐방 - 해안도시 몬트레이 - 덴마크 민속촌 마을 솔빙 방문
2024. 4. 16.(화) ~2024. 4. 17.(수) [9~10일차]	미국 → 대한민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에어프레미아 YP102편’ 귀국 - 로스앤젤레스공항 2024. 4. 16.(화) 10:50 출국 - 인천국제공항 2024. 4. 17.(수) 15:45 도착

[1일차] 로스앤젤레스 도시 탐방

①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돌비극장(Dolby Theatre)]

- 매년 3월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장소로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영화 ‘기생충’으로 널리 알려졌다. 평소에는 쟁쟁한 뮤지션들의 콘서트와 권위 있는 전시회 등의 이벤트가 열리며, 입구 양 옆으로는 1930년부터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제목이 적혀 있으며,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릴 때면 레드 카펫이 깔리고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이 카펫을 밟고 입장한다.

[워크 오브 페임(Walk of Fame)]

- 미키 마우스부터 알프레드 히치콕까지 좋아하는 스타들의 이름을 보며 걷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 된다. 별 안에는 유명인들의 이름과 함께 마크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마크는 분야별 다섯 개로 나뉘는데 카메라는 영화, TV는 텔레비전, 레코드는 음악, 마이크는 라디오를 상징한다. 전설의 복싱선수 무하마드 알리의 이름은 유일하게 바닥이 아닌 벽에 걸려 있는데, 자신은 쓰러지지 않는다는 뜻을 담아 벽에 걸어달라 했다고 한다.

[TLC 차이나이즈 극장(TLC Chinese Theatre)]

- 돌비 극장과 함께 할리우드 블루바드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중 하나. 탑, 사자 그리고 용 장식과 끝이 날카롭게 올라간 중국풍 처마는 이 일대 그 어떤 건물보다 눈에 띈다. 유명 스타의 핸드 프린팅이 가득한 극장 앞은 특히 인기 있는 할리우드의 상징적인 장소다. 1920년대에 시작된 이 행사로 지금까지 배우와 감독, 방송인, 음악인 등 수많은 유명인의 손발 프린팅, 그리고 사인이 바닥에 새겨졌다. 찰리 채플린, 아널드 슈워제네거, 조니 뎀, 니콜라스 케이지 등 할리우드 배우를 비롯해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프린트를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 대한민국 배우로는 안성기, 이병헌의 핸드 프린팅을 찾아볼 수 있다.



Key Point

- ‘영화’가 하나의 산업이자 도시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도시 차원의 노력
- 유명인들의 이름, 싸인, 손도장 등 스타 마케팅을 통해 관광명소화



돌비극장



워크 오브 페임



TLC 극장

□ [2일차] 라스베가스 도시 및 시설 탐방

② 라스베가스(Las Vegas)

[베네시안 호텔(The Venetian Resort Las Vegas)]

- 미국 샌즈 그룹이 오픈한 베네시안 호텔은 라스베가스의 대표 명소답게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그대로 옮겨 온 것처럼 건물의 천장 벽화, 실내 운하와 곤돌라까지 재현해 마치 테마파크에 놀러온 듯하다. 실내 친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냄새나 이끼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맑고 밝게 칠해진 천장의 구름 그림은 마치 밝은 낮의 베네치아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다.

[벨라지오 호텔(The Bellagio Hotel)]

- 분수쇼로 유명한 벨라지오 호텔은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중심부에 있으며 유명한 만큼 볼거리도 가득했다. 호텔 로비 천장에는 유리공예의 거장 데일 치홀리의 'Fiore Di Como'가 있다. 로비 안쪽 보태니컬 가든(botanical garden)에서는 계절마다 다른 테마로 꾸며진 아름다운 정원을 볼 수 있었다. 3.6 헥타르 규모의 인공 호수에 자리 잡은 벨라지오 분수대의 분수쇼는 클래식, 대중음악, 뮤지컬 음악 등 다양하게 선곡하며, 벨라지오 호텔의 분수대는 분사구가 1,200여 개, 전구가 4,500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스피어(Sphere)]

- 스피어는 2023년에 개장한 세계에서 가장 큰 구형 건축물이다. 23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입되어 지어진 만큼 지름 157m, 높이 112m 규모(약 1만 7500석)의 압도적 스케일로, 콘서트를 비롯해 스포츠 경기 등 다목적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외부 전체가 LED 스크린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크린으로 '달·지구·국기' 등을 투사하며 관광객들의 이목을 한눈에 끌고 있다. 내부에도 대규모 스크린과 돔을 이용한 다양한 음악 공연과 스포츠 경기가 열리고 있으며 라이선스 사업을 통해 광고 수익까지 창출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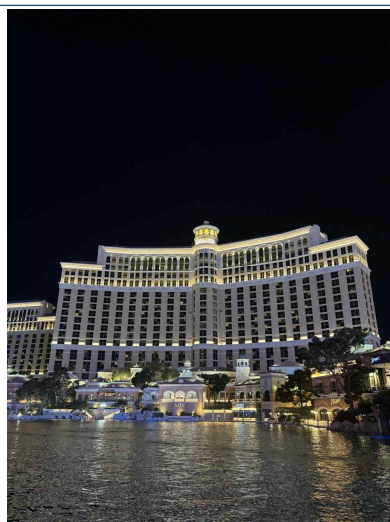


Key Point

- 실내외 친수시설(실내운하, 분수대) 및 실내 조경(보태니컬 가든) 관리 우수성
- LED 조명 활용 명소화 및 광고 수익 창출(별빛내린천 미디어 글라스 적용 가능)



베네시안 호텔 실내운하



벨라지오 호텔



스피어

□ [3일차]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PS) 운영 국립공원 방문(1차)

③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PS) 운영 국립공원 시스템 탐방(1차)

[자이언캐년(Zion Canyon)]

- 이번 미국 연수에서 가장 먼저 방문한 국립공원은 자이언캐년이였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 중 하나인 자이언캐니언은 1919년 11월19일 총 229mile²의 크기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신의 정원'이라 불릴만큼 경이적인 풍경을 선사해주는 협곡으로 이름도 예루살렘의 성지인 '시온(Zion)산'에서 따왔다고 한다. 깎아지른듯한 수직 절벽이 협곡의 양 옆을 호위하고 있는데 무려 400만년에 걸쳐 만들어졌다고 한다. 자이언캐년에는 사암으로 이루어진 기막힌 돌기둥과 절벽을 푸르게 빛내는 숲과 폭포, 바위로 만들어진 피라미드가 이곳 저곳에 제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브라이스캐년(Bryce Canyon)]

- 두번째로 방문한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의 면적은 145km²이고, 일부지역이 국립기념물로서 보호지정된 지 5년 뒤인 192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미국 유타주 남서부에 있는 일련의 거대한 계단식 원형분지로, 미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 가운데 하나이다. 지명은 초기 정착자였던 예비니저 브라이스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브라이스 캐니언골짜기에는 일출과 일몰 때 선명한 오렌지색·백색·황색 등의 빛깔을 띠는 암석과 흙으로 된 대규모의 돌기둥 수백만 개가 있다. 그밖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협곡과 아름다운 산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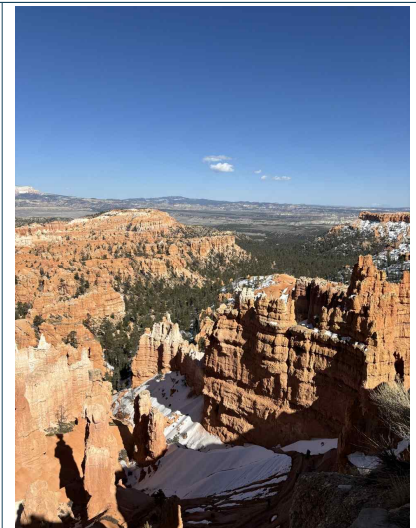


Key Point

- 광대한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국립공원관리청의 노력
- 미국 정부가 국립공원의 기후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4,400만 달러(약 586억 원)의 투자를 밝혀(2023. 8.) 친환경 국립공원의 발전상 기대



자이언캐년



브라이스 캐년

□ [4일차]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PS) 운영 국립공원 방문(2차)

④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PS) 운영 국립공원 시스템 탐방(2차)

[홀스슈밴드(Horseshoe Bend)]

- 홀스슈밴드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관광지역으로 SNS를 통해 처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민간인 무단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따라 미국 정부에서는 홀스슈밴드를 관광지로 개발하여 민간에 공개하였다. 일출과 일몰의 장관이 유명하여 사람들이 많이 찾는 홀스슈밴드는 콜로라도 하류의 강이 굽어 흐르는 협곡으로, 말발굽을 닮아서 홀스슈밴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오랜시간의 강 하류줄기의 퇴적 작용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홀스슈밴드의 물은 파월호수와 연결이 되어 세계의 자연 경관 중의 베스트로 꼽힌다.

[안텔로프캐년(Antelope Canyon)]

- 나바호인디언 보호 구역(Navajo Indian Reservation)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신비의 모습의 안탈롭캐년은 그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기 위해 많은 사진작가들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다. 1987년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되었으나 1997년에 큰 홍수 사고를 겪은 이후에는 한정된 가이드 투어로만 방문이 가능하다고 한다. 안텔롭(Antelope)이라는 이름은 동물인 영양에서 따 온 말인데, 영양의 뿔 모양을 닮아서 붙인 이름이라는 설도 있고, 인디언 아이가 영양을 따라가 보니 나타난 곳이라는 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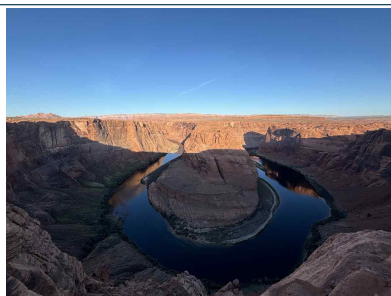
[그랜드캐년(Grand Canyon)]

- 영국 BBC 선정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1위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랜드캐년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캐년으로매년 약 600만 명이 방문하는 곳이다. 이 거대한 캐년을 만들어낸 콜로라도강의 길이만 450km, 폭 15km, 캐년절벽의 높이 1.6km로, 연수단의 상상의 크기를 능가했다. 캐년의 가장자리에서 볼 수 있는 네 방향의 림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림은 사우스림(South Rim)이라고 한다.



Key Point

- 미개발 관광지(홀스슈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국립공원화 노력 및 관광명소 개발 지원
- 안텔로프캐년 관광사업에 대한 현지 원주민(나바호) 가이드 독점권 부여로 다문화(인종)수용 및 자립지원



홀스슈 밴드



안텔로프캐년



자이언캐년

[5일차] 한인이민 선조 정착지 및 해외독립운동 지역 견학

⑤ 리들리 한인정착지(Parc de Catalunya)

[리들리(Reedly) 독립문]

- 리들리는 미본토 최초의 한인이민 선조들의 정착지이자 해외 독립자금 조성의 중심지로, 리들리 독립문은 지난 2010년 리들리시가 163명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국가보훈부, 한인 역사연구회가 13만 달러 등의 기금을 마련해 세워졌다고 한다. 리들리 독립문은 14피트 높이로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실제 독립문 원형의 25%로 축소된 크기다. 기념판이 설치된 버지스호텔과 독립문이 있는 뉴바로장로교회 건물 앞의 거리는 한국서 3.1운동이 일어난 후 가두행진이 펼쳐졌던 거리라고 하는데, 머나먼 타국에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하신 선조들의 헌신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곳이었다.

 Key Point

- 미국 내 항일유적 방문을 통한 애국심 고취 및 역사인식 함양



리들리 독립문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만세삼창

[6일차]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PS) 운영 국립공원 방문(3차)

⑥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PS) 운영 국립공원 시스템 탐방(3차)

[요세미티 국립공원(Yosemite National Park)]

-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198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화강암 절벽, 폭포, 깨끗한 개울 등으로 한 해 약 500만 명 이상이 찾는 국립공원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자리하고 있으며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떡갈나무와 히말라야 삼목, 폰데로사소나무가 그 어떤 그림보다 황홀한 경치와 삼림, 계곡으로 이루어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등산 브랜드인 노스 페이스(North Face)의 브랜드 마크가 이곳 요세미티의 바위산 하프돔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한다.

 Key Point

- 2022년 초대형 산불(여의도 면적 25배) 발생에도 자이언트 세쿼이아 나무를 보존할 수 있었던 사전적 화재 예방 노력



요세미티 국립공원



요세미티 국립공원



요세미티 국립공원

□ [현지 7일차] 샌프란시스코 도시 및 기업 탐방

⑦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구글 본사(Googleplex)]

-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지역에 위치한 구글 본사는 구글플렉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구글플렉스는 구글플렉스(십진수)에서 따왔다고 한다. 지붕은 태양열판으로 만들어 친환경 건축이 돋보이는 건물이었다. 건물 외부와 내부에 구글로고 디자인 컬러(빨강, 노랑, 초록, 파랑)를 메인으로 삼아 건물을 포함한 전체 디자인을 브랜드의 상징색으로 꾸며 일체감을 준 것이 인상적이었다.

[메타(구. 페이스북) 본사(Meta)]

-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한 메타 본사는 대학교캠퍼스를 컨셉으로 부지를 꾸며두었으며, 내부는 하나의 마을처럼 꾸며져 있어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친숙한 분위기에서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고 한다. 기업 내부에는 별도의 바이크 샵이 위치해 있어 직원들이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고 업무공간을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금문교(Golden Gate Bridge)]

-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의 상징물로 정말 많이 등장하는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와 마린 카운티를 연결하는 현수교이다. 안개가 자주 끼는 날씨로, 안개 속에서 살짝 들어나는 빨간색의 다리를 보고 있으면 신비스럽고 경외감까지 느끼게 된다. 1917년에 처음 설계하였고, 경제 대공황 당시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교량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는 인터내셔널 오렌지컬러의 프라이머로,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이 지역에 잦은 사고를 막기 위해 눈에 잘 띄어야 하고 철재 교량의 부식을 막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한다.



Key Point

-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해 에너지절감과 심미성을 모두 고려한 건축
- 공단 SNS(페이스북, 카카오토리) 관련 홍보 활성화 방안 논의



구글플렉스(친환경 건축)



메타(페이스북) 본사



금문교

[현지 8일차] 현지문화 탐방

⑧ 솔뱅(Solvang)

[덴마크 민속촌 마을 솔뱅(Solvang)]

- 솔뱅은 샌타바버라 카운티에 속한 작은 마을로 1911년에 미국 중서부 지역에 거주하던 덴마크 이민자가 집단으로 이주해 마을을 세웠다고 한다. 하얀 벽과 나무지붕 등 덴마크 양식의 주택과 풍차가 북유럽적 풍경을 보여준다. ‘미국 속의 덴마크’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덴마크보다 더 덴마크답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실제로 덴마크의 전통을 잘 보존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덴마크 총리가 방문하였다고 한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박물관과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것과 같은 외양의 인어공주 복제상이 있다.

Key Point

- ▶ 전통문화 및 건축양식 보존을 통한 관광명소 운영



덴마크 민속촌 마을 솔뱅



덴마크 민속촌 마을 솔뱅



덴마크 민속촌 마을 솔뱅

5 선진사례 탐구 및 적용방안

안전사고 예방 지역 선제적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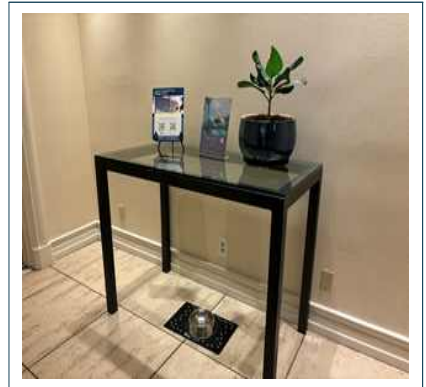
- ➔ 홀스슈 밴드의 경우, 미개발 지역이었으나 SNS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면서 무단침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문제가 불거졌었음.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홀스슈 밴드를 안전 시설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하여 대중에 개방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관광산업 확대라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음. 또한 요세미티 국립 공원에 2022년 발생한 초대형 산불에도 불구하고 랜드마크인 ‘거인 나무’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은 산불의 연료가 될 수 있는 유기물(고사목, 낙엽 등)들을 사전 제거하고 대형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나무 근처에 설치, 방화담요(알루미늄 호일)를 밑동에 씌우는 등 관광명소와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립공원관리청(NPS)의 노력이 돋보임. 공단 관리 시설 중에서도 시설별, 공간별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에 따라 선제적 관리를 통해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펫 프렌들리(Pet-friendly) 시설 확대

→ 애완견의 천국이자 세계 최대의 애완산업이 자리를 잡은 미국 답게 어디에서나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았음.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반려견에 대한 공간적 배려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음. 공단이 관리하는 별빛내린천에도 반려견 전용 놀이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미국에는 반려견이 배변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으며 공공시설 내에서도 반려견 전용 급수대를 설치하여 반려견을 동반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시설에 반려견 동반입장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펫 프렌들리 시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반려견 배변 전용 장소



시설 내 반려견 급수대 제공

□ 공단 로고(CI) 활용 디자인 통일성 브랜딩

→ 구글 사옥의 경우 태양열 발전시설을 활용한 친환경 디자인의 돋보이기도 했지만 구글 로고의 메인색(빨강, 노랑, 초록, 파랑)을 활용한 디자인 통일성을 제시했다는 점이었음. 단순히 사옥 뿐 만이 아니라 전용 자전거, 거치대 도로 등에 메인색을 활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자산과 서비스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음.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공단 로고(CI) 메인 색(남색, 초록)을 공단이 제공하는 주차, 체육시설에 통일감 있게 적용하여 주민들에게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의 서비스 영역과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구글사옥 전경



구글 메인색 활용 자전거 디자인



구글 메인색 활용 자전거 거치대

끝.